ORDINARIATE MILITARY OF KOREA

군종주보

2018년 12월 25일(제908호) 주님 성탄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2018년 성탄메시지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사 9,1)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구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및 탄생 대축일을 맞아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및 탄생 대축일을 맞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미의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I

구약에서 미래에 오실 구세주에 대해 가장 상세히 기록한 부분이 이사야서 9장 1-5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와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라는 두 표현으로써 구세주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이 두 표현은 사실 같은 내용을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상태에 구세주께서 구원의 빛이 되어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이 표현은 당시의 어두운 정치 상황, 어두운 사회 상황, 어두운 경제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마음의 어두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당시의 연약한 왕 아하스가 자신의 고문이었던 이사야 예언자가 믿음과 용기를 가질 것을 탄원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함으로써 국가적 재앙을 초래했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들 가운데 무엇보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 무너짐으로써 오는 어두운 상황을 이사야 예언자가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어두운 상황에 구세주께서 빛으로 오시어 인간 마음속의 어둠을 흩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라는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이사 9,2)

흥미롭게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오, 루카 두 복음사가들도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에 탄생하셨음을 말해줍니다. 마태오복음사가는 예수님 탄생의 현장 모습을 간단히 기록하고,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로 유대아 땅에 왔고 별의 인도가 끝난 베들레헴에서 기뻐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마태 2,11)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동방 박사들이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음을 암시하면서 그들이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루카 2,8)에게 천사가 예수님 탄생의 첫 소식을 전했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루카 2,9)고 기록함으로써, 역시 한 밤의 어둠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말해주고 여기서도 소식 전달자 천사는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루카 2,10) 여기의 어둠은 물론 밤이라는 자연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지만, 어두움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2면에 계속>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제 1 독 서	이사 9,1-6
화 답 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제 2 독 서	티토 2,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 음	루카 2,1-14
영 성 체 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2018년 성탄메시지> (계속)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되어 오시어 인간의 어두운 마음 곧 죄와 삶의 고통으로 가득 찬 인간 마음을 환히 밝히시어,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하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성탄 강론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성 레오 대 교황의 성탄절 강론도 이 기쁨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구세주께서 탄생하셨으니 기뻐합시다! 죽음의 두려움을 파괴하시고 영원한 약속들에 대한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한 생명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인간의 죄들과 여러 가지 역경과 불행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 오는 어둠을 파괴하시고, 우리 마음을 순수함과 희망으로 밝혀주시는 우리의 빛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없이 기뻐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교만, 음행, 탐욕 그리고 이기심 같은 여러 죄들을 뉘우치고 통회하며 동시에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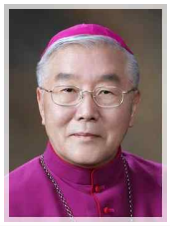
II

예언자 이사야는 태어나실 구세주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이사 9,5) 한편 복음사가 루카는 천사의 말을 전한 탄생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루카 2,11) 구약과 신약의 이 두 성경 구절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구세주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사야서 9장 5절이 기록한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입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이 아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어남 곧 탄생"과 "주어짐"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천사의 말을 인용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라고 기록하여 이사야 예언자의 기록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은 요한복음사가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요한 3,16)라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 번째 표현인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라는 표현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탄생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하시고자 내어주신 사랑의 최고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주시어"는 단순한 탄생을 넘어서서 우리 구원을 위한 십자가 제물로까지 삼으셨다는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III

형제자매 여러분,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요,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관상하면서 큰 기쁨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및 탄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2018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천주교 군종교구장
유수일 F. 하비에르 주교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제 1 독 서 이사 52,7-10

화 답 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 2 독 서 히브 1,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 음 요한 1,1-18

영 성 체 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